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린작가 작품전

전주문화재단, 12월 2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共存공존·共生공생, 그리고...'展 개최

(재)전주문화재단(대표 백옥선)은 10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2021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 그린작가 작품전인 '共存공존·共生공생, 그리고...'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그린작가로 선정된 5팀이 만들어 낸 결과 전시로, 이 프로젝트 주제인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한 성찰과 얼마 남지 않은 지구의 시간을 위해 예술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 찾기로 시작됐다.

이에 따르면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구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의 실천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으며, 지난 5월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실천할 예술가 5팀의 창작활동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크리스조민 : 아름다움 너머 展'과 '환경과 예술이 만나는 그린포럼'을 진행해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공감대를 이뤄 환경 지킴에 관한 담론을 형성했다. 이후 지난 1년 간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예술의 역할과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 작가는 공모로 선정된 작가 5팀으로 박미애컨템포러리, 나도영(김수나·박일종), 안현준·김보미, 차유림, 조민지·김의진·노진아·김채연·김미래·박현진·손다운 등이다. 박미애컨템포러리는 작품 '출을 통한 환경 말하기 <날개>'를 통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



'共存공존·共生공생, 그리고...'展 포스터.

가는 인간과 그 환경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승주의 시를 무용으로 풀어내고, 영상으로 담아낸 이 작품은 개막식 당일 퍼포먼스로 만날 수 있다.

김수나와 박일종 작가가 함께한 팀 나도영의 작품은 생명체와 지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의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물이라는 물질

이 응고와 용해, 기화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그 모습을 달리하지만, 큰 순환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과 자연, 지구를 오랜 기간 지속시키는 순환구조를 비유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안현준·김보미의 작품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원이 얼마나 소비되는지를 아카이빙 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환경을 생각하며 사는 나의 모습과 자각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제로 작품을 선보인다.

차유림의 작품은 공존이라는 주제로 에코토피아적 세계를 꿈꾸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유기적이며, 균형적으로 유지하며 자유로운 공생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민지 외 6명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주제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문명의 발전을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유를 던지고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구 환경위기 근원에 대한 성찰이 이어지길 바라며,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엄청난 토네이도를 일으키듯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내비효과가 되어 건강한 지구 생태계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관람료는 무료이며, 사전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팔복예술공장 미래전략팀(063-211-9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홍성준 학생,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대상'

무주군, 금상 2명 · 은상 3명 · 동상 5명 ·佳作 10명 선정

무주군은 제3회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에서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화흥고등학교 1학년 홍성준 학생('내 소년 시절과 소(시)' 출품)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은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주출신 김환태 문학평론가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창작 의욕을 주기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금상은 전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유송정 학생의 '의무 없는 사람은 실상하지 않는다(수필)'와 무주고등학교 1학년 최정은 학생의 '적산산 이야기(수필)'이 각각 뽑혔다.

이밖에도 무주군은 모두 출품작 가운데 심사를 통해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佳作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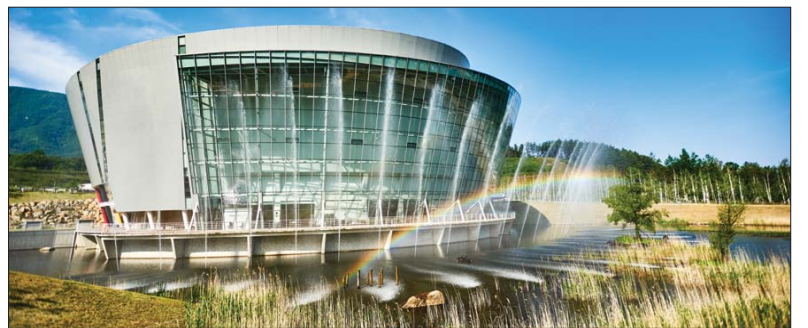
앞서 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주제의 적합성과 표현의 참신성, 작품의 완성도와 맞춤법 등 심사기준을 마련

해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심사위원으로는 박범신 작가(소설가), 전선자 작가(시인), 이봉명 작가(시인) 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상식을 생략하고 수상자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우편 및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권태영 소장은 "김환태 선생의 업적과 순수 비평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청소년 문학상을 공모하고 있다"라며 "전국의 많은 중학생들과 청소년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공모에 참여했고,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일제강점기 문학평론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무주출신 김환태 선생의 문학 상상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무주군 전통공예문화촌 내 김환태 문학관을 설립했다. 김환태 선생의 도서와 사진 유품 등 400여점의 자료를 갖추고 있어 지난 2019년 전북도로부터 전라북도 국립 문학관으로 지정 등록된 바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태권도진흥재단, 6개 기관과 태권도원 활성화 제휴 계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영환)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과 태권도원 활성화를 위해 제휴를 맺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8일 주재관리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개 기관과 '태권도원 활성화 및 태권도 문화 확산, 복지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휴 계약을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제휴를 맺은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태권도원 입장료 및 객실 할인, 태권 스테이 및 태권 투어 등 태권도원 기획 상품 별도 운영, 기관 주최·주관 행사 시설 및 객실 할인, 연수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등을 하게 된다.

오영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철저한 방역을 시행 중인 태권도원을 찾아 태권도 문화를 즐기면서도 각 기관의 업무 성과와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태권도원과 함께 덕유산, 구천동 등 청정 자연 무주에서 연수와 휴가를 즐기며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과의 제휴 신청은 태권도원 누리집을 방문해 '온라인 예약·사전예약'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태권도진흥재단 마케팅부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기자

남원백두대간서 삼도미술교류전 진행

3개 지역 미술협회 회원 100명 참가
회화 · 공예 · 조각 등 작품 100점 전시

남원시는 32년의 역사를 지닌 미술행사가 자리산을 마주하는 남원백두대간에서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제32회 남원백두대간에서 만난 三道 미술교류展

한국미술협회 구미·아산·남원 회원 100점 전시

2021. 11. 10(수) ~ 11. 25(목)

·장 소: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1층 기획전시관 및 전시홀
·축하공연: 11. 19(금) 11:00 / (사)남원필오케스트라

주최: 남원시, (사)한국미술협회 구미지부, (사)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사)남원필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이번 미술행사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삼도교류전을,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북도의 남원시가 남원백두대간에서 만난다.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 주최하고 남원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3개 지역 미술협회 회원 100명이 참가해 회화, 공예, 조각 등 작품 100점을 선보이며, 본 행사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19일 공연할 예정이다.

삼도교류전은 서로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삼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로서 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문화예술 공간의 제약을 최소화 하고, 남원시가 운영하는 공간을 공유해서 지역예술계에 '슬기로운 문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진으로, 삼도의 문화예술인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의 역할과 예술로서 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